

들끓는 광주 “정몽규, 면피용 사퇴 말고 수습 책임져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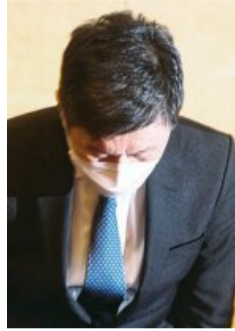
현대산업개발 회장, 화정 아이파크 붕괴 일주일 만에 무책임 사퇴 발표
“두 번이나 광주시민 희생 ... 현장 와서 사과하고 책임있는 조치 이행할”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 이후 일주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회장의 무책임한 사퇴 발표 직후 광주 민심은 종일 들끓었다. 그동안 실종자의 생환소식만을 기다리며 격렬한 분노를 삭여왔던 광주시민의 인내심이 현산측의 ‘후안무치’한 행태 앞에 폭발한 것이다. <관련기사 6·7면>

이용섭 광주시장은 17일 오전 정 회장 사퇴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정몽규 회장, 사퇴가 능사 아니고 책임지는 모습도 아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2일부터 하루 24시간 사고 현장에서 수습을 해결하며 머무르고 있는 이 시장은 “사고 발생 일주일만에 사고 현장도 아닌 서울 현산에서의 사퇴 발표는 실망을 넘어 분노와 울분만 줄 뿐”이라며 “(정 회장은) 사고 수습 전면에 나서고, 책임 있는 조치도 확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동안 “또 다른 희생은 원치 않는다”며 더딘 구조와 수색작업을 속속들이며 기다려온 실종자 가족 사이에서도 결국 격앙된 반응이 터져나왔다. 붕괴사고 현장 내 실종자 가족 전막에서 TV로 정 회장의 사퇴 발표 모습을 지켜본 한 가족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정몽규는 정말 나쁜 사람”이라며 “두 번이나 광주시민을 희생시킨 회장이라면, 최소한 사고는 다 정리하고 회사를 떠나든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 가족 협의회 대표는 “사과할 거면 현장에 와서 해이자, TV 통해서 고개 몇 번 숙이는 건 결국 국민을 상대로 ‘쇼’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퇴에 앞서 사태해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응당한 처벌부터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가족 협의회는 또 이날 성명문을 내고 “구



머리숙인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 /연합뉴스

조작전에 현대산업개발이 투입된 것은 시공 중 사고를 낸 살인자에게 피해자의 치료를 맡기는 격”이라며 “구조작업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투입을 망설이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을 배제하고 정부에서 직접 전문가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다만 “소방대원과 인명구조

조건, 중장비 운용 기술자와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과 충분한 휴식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광주 시민사회 등 각계에서도 정 회장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해 시민단체가 결성한 ‘학동 참사 시민대책위’는 이날 “차가운 시멘트 덩어리에 갇혀 생사를 넘나들고 있는 실종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회사의 역할을 동원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사고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에만 골몰해 있다”며 “정몽규 회장을 구속수사하고,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도 성명을 통해 “정 회장의 사퇴 발표문 중 사고 현장을 어떻게 수습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책은 전혀 없었다”며 “사퇴는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사퇴가 아니라 실종자 수색과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책임지고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타워크레인 안전진단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7일째인 17일, 기울어진 타워크레인 해체에 앞서 구조-안전 분야 전문가들이 120m 높이의 대형 크레인에 연결한 작업대를 타고 건물 안전진단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오미크론이 우세종 됐다

광주 80%·전남 71% 차지
코로나 하루 400명 넘어서

광주·전남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첫 사례다.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확산으로 지역에서는 역대 하루 최대인 4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1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으로 확인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1주 동안 전체 변이 바이러스 가운데 오미크론은 33%였다. 오미크론은 2주 차에 41%, 3주 차에는 49%였지만 4주 차(1월 8~14일)에는 80%를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우세종으로 자리잡았다.

광주에서 확인된 오미크론 변이 감염 건수는 최근 1주일 동안 217건이 늘어 모두 571건이 됐다. 오미크론 확인 건수가 늘어나는 동안 확진자도 급증했다.

확진자 추이는 1주 차 460명, 2주 차 556명, 3주 차 571명에서 4주 차 1178명으로 늘어났다. 최근 일주일(10~16일) 하루 평균 확진자는 189명으로 직전 주(3~9일) 89명보다 배 이상 많다. 이 기간 광주시의 확진자 발생 건수가 많은 것은 전국 평균을 웃도는 진단검사의 영향도 크다는 광주시의 설명이다.

실제 광주시는 지난 1주일 간 하루평균 인구수 대비 1.4%인 2만명이 검사를 받았고, 확진판정을 받은 양성률은 1.1%였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인구대비 0.77%가 검사를 받았고, 양성률은 광주보다 2배 이상 높은 2.3%를 기록했다. 광주의 높은 검사건수 때문에 감염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추정이다.

전남도 비슷한 상황이다.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4일까지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147명을 대상으로 오미크론 변이 여부를 검사한 결과, 이 중 105건이 오미크론으로 확인됐다. 의심 확진자 중 71%가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었다. 전국적인 오미크론 검출률

은 26.7%를 기록 중이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잡은 광주·전남은 지난 11일부터 연일 300명대를 기록했다. 17일에는 0시 기준 광주 237명, 전남 166명 등 403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첫 400명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편 광주시는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해 이날부터 24일(평일·주말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 광산구 광산구 하남3지구 주차타워2(하남동 1201)에 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 운영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정몽규 “화정아이파크 완전철거·재시공 고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17일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수습책과 관련해 해당 아파트의 완전 철거나 재시공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번 사고를 책임지고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정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사고 피해자 가족과 국민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회장은 화정아이파크 현장 대책에 대해 “안전 점검에 문제 있다고 나오면 수(기)분양자 계약 해지는 물론 완전 철거와 재시공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특히 “이번 사고로 인해 피해자 가족분께 피해보상을 함은 물론 입주예정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도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이 평생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안전품질 보증을 대폭 강화해 현대산업개발의 모든 골조 등 구조안전보증 기간을 30년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정 회장은 이날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도 밝혔다.

정 회장은 이날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도 밝혔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굿모닝 예향 - 남도 오디세이 '영암 味路' ▶19면

70 광주일보 70년
열독률 호남 1위

바이탈뷰티

마시는 프리미엄 콜라겐
슈퍼콜라겐 골드



구매문의: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080-023-5454